

수석보좌관회의 - 일본 방문

방일을 통해 북핵 문제와 한·일 경제협력 등 당면과제를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. 특히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한·일 관계를 중심으로 21세기 신동북아 질서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.